1. 사도행전의 성령론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인격적이며 활동적인 능력이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예언적인 존재이다. 구약성경에서 성령은 예언에 영감을 준다. 성령은 지도자를 세운다. 성령은 하늘과 사람들을 창조한다. 성령은 심판하고 정화시킨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의 영을 이스라엘에게 부어준다. 사도행전의 성령이해는 이러한 성령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누가에게 있어서 성령은 이스라엘에 속하고 하나님 백성의 역사의 일부분이다. 성령은 예수나 교회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성령은 구약시대부터 항상 그곳에 있어왔다. 그러나 성령은 마지막 때에 교회인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령의 사역으로 간주된다. 서문 (1:1-8)에서 중요 주제는 하나님 나라 (1:3, 6), 성령 (1:4. 5. 8),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다 (1:8). 그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1:6).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하여 묻는 사도들의 질문에 대답은 성령이 그들에게 올 것이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다라는 것이다 (1:8). 그 나라의 회복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1:6).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하여 묻는 사도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령이 그들에게 올 것이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1:8).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1:15-26에 있는 그 백성의 지도력의 회복에서도 나타난다. 누가는 과거의 지도자들이 특히 성령을 거역함으로 실패한 후에 그 백성의 지도자가 교체된 것을 본다 (7:51-53). 이 회복은 성령의 사역의 부분이다 (1:6). 성령과 이스라엘 간의 연결은 성령의 부음에서 더 잘 드러난다 (행 2장). 곧 사도행전의 성령은 이스라엘의 성령이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자산인 성령을 받았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들을 공유한다. 성령이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관계에서 이미 암시된다 (행 1:4; 2:33; 눅 24:49). 더 나아가 누가는 성령을 요엘서 3:1-2의 예언 (행 2:17)과 연관시킨다. 누가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성령에 대한 저항과 반대의 역사로 본다 (행 7:51). 이스라엘은 그 백성의 전체 역사에 걸쳐서 성령을 거부했다 (행 7:51).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임으로써 성령에게 저항했고,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큰 인물은 모세이다 (행 7:17-41). 모세가 율법을 수여한 것은 지나가면서 언급되지만 (7:38),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로 간주된다 (행 7:36). 진정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더 이상 성령에 반대하지 않는다 (행 7:51). 신약시대에 교회 안에서 성령에 대한 어떠한 반대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이었다 (행 5:1-11).

누가복음에서 성령은 이스라엘의 영이며 동시에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누가복음에서 성령은 일종의 예언의 영이라 할 수 잇다. 예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성령을 통해서 예언자들은 메시야가 왔고 십자가에 달렸고 부활하셨고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야라는 것을 증거한다 (행 2:29ff; 7:55-56; 10:38; 17:2-3). 성령과 설교 사이의 연관점은 분명하다. 이것은 내용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들이 설교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설교는 담대하게 이루어진다. 사도행전에서 이 담대함은 오직 설교와 관련된다 (행 2:29; 4:13, 29, 31; 9:27, 28; 13:46; 14:3; 18:26; 26:26; 28:31). 그 담대함은 개인적인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다. 행 4:24-30에서 회중들은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치료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동안,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간구한다. 사도들은 큰 으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 그 설교는 기적에 의해 확증되고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으로 자신의 말씀을 증거한다 (행 5:32; 6:3, 5; 8:29, 39; 13:12; 14:3; 19:10-11). 혀로 말하는 방언은 예언에 수반되는 하나의 부가적인 상황이다 (행 2:4; 10:46; 19:6). 하나님은 성령, 음성, 환상 등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한다. 따라서 성령은 대체로 하늘로부터 직접 행동하고 말한다 (1:5ff; 2:4ff, 33, 38; 4:8, 31; 5:32; 6:3, 5, 10; 8:29, 39; 9:31; 10:19; 11:24, 28; 13:2ff, 9, 52; 15:28; 16:6, 7; 19:21; 20:22ff, 28; 21:4, 11). 예언은 교회 바깥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다른 예언자들도 언급되지만 그들은 거짓 예언자이거나 마술사들이다. 반면 교회의 구성원들은 진정한 선지자들의 자손들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자손들이다 (3:25). 예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연속성의 표현이다. 사도행전에서 예언의 영으로서의 성령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미 구약성경에서 성령은 예언에 대한 영감을 주시는 분으로 표현되었고, 이러한 구약종교의 연장선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에 영감을 주는 분으로 성령님께서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곧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성령을 소유하며, 구약성경에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성령님께서 활동을 하신다. 이러한 예언의 영으로서의 성령은 오늘날 설교와 전도에 영감을 주시는 분으로 활동하시는 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과 선교의 영으로서 성령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새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여러 차례 언급된다 (행 10:44, 45, 47; 11:15, 16; 15:8).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로 제시되고 있다고 고려한다면 횟수는 늘어난다 (행 8:4-25). 비유대인들이 오직 이스라엘에게 속한 그 선물을 받는 것은 선례가 없는 것이고 누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강조한다 (10:45, 47; 11:15; 15:8-9). 성령의 선물은 심지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징표이다 (11:18; 15:8).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있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발견한다. 곧 성령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영이시며 이스라엘의 영으로서 새언약 백성을 창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의 성령론을 오순절 계통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오순절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성령론을 구원받은 이후에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로 언급하며, 특히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 물론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사도행전의 성령론의 핵심은 언약적, 선교적 차원에 위치한다. 사도행전의 성령은 그 백성이 되게 하는 새언약의 영이며 동시에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예언의 영이시다. 사도행전의 성령은 은사의 영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예언의 영으로서의 성령은 현대 교회의 설교 혹은 전도, 교회 내의 가르침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또한 양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성령론은 바울 서신의 성령론과 상충되는가? 예언의 영으로서의 사도행전의 성령론적 강조점은 바울 신학과 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 하지만 다음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바울 서신의 성령은 문자와 영의 대조사이에서 언급된다. 혹은 영과 육, 혹은 혼과 영의 이원론적인 구도 가운데 언급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 서신의 성령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새언약의 영이심이 분명하다. 그리고 새언약에 따라 (겔 36장 참조), 자기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순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LXX 에스겔 11:19-20) “내가 그들에게 다른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은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곧 성령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사도행전에서도 등장한다. 누가의 관점은 교회는 성령을 가지고 있고 율법에 순종하며 이 교회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성령은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백성의 불신앙적인 부류는 성령을 반대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행 7:51-53). 성경에는 아무런 긴장이 없다. 율법은 명령 뿐 만 아니라 예언을 포함하고 있다. 누가는 그의 작품의 처음부터 성령과 율법의 조화를 보여준다 (눅 1-2). 교회는 성령과 율법을 가진다. 회당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 (행 7:53; 15:21). 모세는 예언자이며 기적을 일으키고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다 (행 3:22; 6:11, 14; 7:36-38). 유대인들이 성령과 율법을 거부할 때,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성령을 가진 이들이 율법을 지킨다. 누가는 예수님이 율법을 준수하신 분으로 간주한다 (행 6:13-14). 예루살렘의 모든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1:8; 2:4, 17ff. 38; 4:8, 31; 5:31ff; 6:3ff). 동시에 교회는 율법에 따라 살아간다 (행 10:14, 28; 11:3ff, 8; 21:21). 바울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수행하며, 항상 율법을 지켜왔고, 또 지키는 예언자이다 (16:3; 18:18; 21:20-6; 22:3; 23:1-5; 24:11f, 14, 17, 18; 26:5; 28:17). 율법을 위반했다고 바울을 고소한 고소의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밝혀진다 (21:21. 24. 28; 28:18). 한편 대제사장까지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23:3),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 (7:53). 곧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성도들과 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로 나눈다. 성령에 반대하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율법을 지킨다. 누가에게 있어서 율법이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교회 내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율법을 지킨다. 왜냐하면 성령의 부음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율법에 불순종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그 교회는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로 구성된다 (행 21:21).

성령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더 이상 짐이 아니다. 이것은 바울서신과 사도행전의 공통점이다. 눅 1-2에서 율법을 충실하게 지킨 예수님의 부모들을 생각해보라. 곧 바울서신과 사도행전에서 성령과 율법 사이에 조화가 존재하며, 이것은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의 공통점을 제공한다.